

오피니언

데스크 시각

이종태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 평가 2010'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눈에 띄게 개선됐을까, 현장에서 만난 기업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아직 잡복해 있는 '전봇대'

전 세계 183개국 가운데 1위는 싱가포르, 2·3위는 뉴질랜드와 홍콩이 각각 차지했다. 기업환경평가 보고서는 매년 각 나라별로 창업이나 고용, 자금조달, 세금 납부 등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절차나 비용을 계량화해 순위를 매긴다.

금융권 '빗장'도 해결돼야

지난 5월 상법개정을 통해 창업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창업부문의 순위가 지난해 126위에서 올해 53위로 경쟁 뛰어올랐다.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을 없앤 점 등이 이번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듯하다. 재산권 등록이나 투자자 보호 부문에서의

전봇대 더 뽑아야 한다

가 적지않아 기업 하기가 쉽지 않다는 애기다.

창업부문만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73계 단 뛰기는 했으나, 그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까다롭다. 상호 등록에서부터 은행 계좌 설정, 세무서 신고, 지방노동청 취업 규칙 신고서 제출 등 8단계를 거치고 나면 14일이나 걸린다. 3단계 이하의 절차만이 필요한 뉴질랜드나 캐나다 등에 비하면 두 배나 길다.

어려운 창업과정을 끊고 협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인들 역시 전봇대로 인해 겪

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남도내에서 대체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A사는 4년째 수억원의 종자돈을 구할 수 없어 제대로 된 공장부지 하나 없이 이리저리 떠돌고 있다. 수차례 신용보증 기금이나 금융권을 노크해봤지만, 5개의 특허등록은 휴지 취급을 받았을 뿐 매출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퇴짜를 맞곤 했다.

중소기업들의 금융난을 해소한답시고 신용대출을 확대하려면 정부의 약속은,

담보와 상환가능성을 제는 금융권의

일이나 허송한 삼이다.

영암 대불산업단지에서 규제의 상장인 전봇대가 뽑혀져나갈 때 기업인들이 환호했던 게 지난해 2월로 기억된다. 그러나 최근 전경련이 올해 1~3월 35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업체가 27.1%에 불과했듯이, '보이지 않은 전봇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등록 규제 찾아내라

지금부터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기업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한다. 기업인들이 진정 바라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규제개혁 시스템과 관련법규 정비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곳곳에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를 찾아내 이를 개선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 지난해 8월 말 현재 정부 주요 부처의 미등록 규제가 1만3천47건으로 등록 규제 4천240건의 3배를 넘었다는 것은 현 정부의 개혁이 서두르거나 게을렀음을 의미한다.

구호만 요란한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기업인들이 기쁠 언덕을 장만해 주기란 쉽지 않다.

<사회 2부장> jtlee@kwangju.co.kr

있다.

반면 사업예정지인 간척지 활용을 놓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초송·송천지구는 진척이 매우 더디다. 초송지구는 농식품부와의 간척지 양도양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시행자조차 없는 상태다. 송천지구는 문제가 더욱 복잡하다. 외국 자본이 특금호텔 등을 짓기 위해 국내 개발전담법인까지 설립했으나 농식품부가 이곳에 대규모 온실단지 조성과 수출전문농어업주식회사 설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외자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와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J 프로젝트는 '반쪽'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업 분야가 새만금과 겹친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J 프로젝트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앙부정부가 J 프로젝트의 성공 개발을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삼호지구 첫 삼' J프로젝트 활성화 계기로

전남도 주요 현안인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가 지난 2003년 밀그리미 그려진 뒤 6년여 만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J프로젝트 6개 사업지구 중 한 곳인 영암군 삼호읍 일원 삼호지구 개발계획안이 정부 최종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시 계획 수립과 보상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첫 삽을 뜨게 될 전망이다.

J프로젝트는 전남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민자를 포함해 총 35조 원이 투입돼 5만 가구, 23만 명이 거주하는 복합관광도시로 조성된다. 삼호지구는 건설단계부터 3조9천800여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만 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J프로젝트는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넘어아 할 산이 적지 않다. 현재 구심과 부동지구는 중앙부처와 협의가 진행중이며 삼포지구 역시 F1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활성화를 모색하고

고려청자 '바가지'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강진군이 고려청자 2점을 구입하면서 엄청난 바가지를 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논란이다. 각각 1억 여원에 불과한 고려청자를 10억원씩에 구입해 18억여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5일 국정감사에서 강진청자박물관이 지난 2007년 10억원에 구입한 청자상감 모란국화 연화문 괴형주전자는 실제 감정가격이 8천만~9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 역시 10억원에 사들인 청자상감 모란문 정병도 시세가 1억4천만~1억5천만원에 불과하다며 매입과 정에 걸친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혈세 낭비도 낭비이지만 공공기관과 공공박물관의 문화재 구매에 범죄행위가 개입된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강진군과 감정평가위원회는 적법한 감정평가를 거쳐 가격이 결정됐다는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해

명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지난 6월 구입한 청자의 경우 3명의 감정평가 위원이 감정가격을 똑같이 10억원에 맞춘 것은 1인 이상 감정위원이 매긴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뒤 그 가격 이하로 구매로 규정해 사실상 협의 감정을 배제한 강진군 조례에 어긋난다. 그런데도 어떻게 협의 가격 그대로 결정됐는지 그 배경에 의문이 간다. 또한 미국 소더비 경매 낙찰자가 1억4천만원인 지난해 7월 구입한 청자 가격이 5백나 원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이번 고려청자 바가지 논란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문화재 분야는 그 동안 고도의 전문성 때문에 여러 불법이 성행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고려청자의 구입 및 감정위원 위촉 경위, 감정가격 책정 과정, 지급된 매매대금의 흐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구입 자금을 회수하고 관련자들을 의혹 조치 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백강화



요즘 서울 윗분들 돌아가는 걸 지켜보노라면 주부지만 참 한심스러운 생각이 든다. 만약 그들이 우리 아이들이었다면 정말 가만 안 두었을 것이다. 헛이나 팽성 같은 청렴한 정성까지 바라 해도 좋은데, 제발 가까스로 음료공장 건설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조장이나 지원보다 규제에 익숙한 공무원이 관련조 항을 중앙부처와 주고받는 과정에서 30여

나라에 강한 향수도 있고, 무엇보다 돈도 없고, 그러니 소위 무자황적 무정부주의 비슷한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개들한테 뭘 바래?' 저희들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제발 나와 내 가족들에게 절실히 적어도 기본 국민들의 존법 정신 정도는 갖춘 이들이 윗자리에 올라야 하는 게 아닌가. 서울 명문대학 나오고 또 그곳에서 어린 학생들 앞에 버젓이 서 가르치고 있는 그들, 정말 그들 중에는 그렇게 제대로 된 이들이

먼 다산의 목심심사에는 주목같은 공

기고

송병태



1964년 비행장 활주로가 준공될 당시 시기지에서 16km 떨어진 허허벌판이었으나 이제 도심권의 중심부에 있게 되었다. 따라서 비행항로 역시 광산구 도심 전지역과 상무신도심 상공을 통과하고 있어 40여만의 광주시민이 직접적인 소음피해를 입고 있다.

소음피해로 초·중·고교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비행항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불안과 청각장애 등 소음과 관련 각종 질병에 고통받고 있다.

설에 따른 부족재원과 민원이 해소되면 이전을 걸로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더불어 1998년 탄약고시설과 관련 사업자까지 선정된 상황 속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면담하여 탄약고가 공군비행장 인근으로 이설 할 경우 학교시설이나 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 1.3km내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소음피해에 시달린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로써 전국 어느 비행장에서도 근거리에

공군비행장 이설 서둘러라

탄약고가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사항이라 설명, 이전사업을 백지화시킨 바 있다. 소음피해와 관련 광산구청 자체 사업으로 용역회사에 의뢰 피해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소음피해 보상 청구 소송 중에 있다.

공군비행장은 무안 국제공항 인근 하류벌판으로 이설해야 한다. 왜냐하면 광주공군은 서남해안 영동 방위임무 일뿐만 아니라 해상을 이용 이착륙할 경우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공군비행장이설에 따른 사업비는 비행장부지 180만평과 탄약고 이설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합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광주의 중심축이 광산으로 옮겨지고 있는 시점에서 인구 밀집지역과 학교시설로부터 1.3km내에 탄약고 이설을 즉시 중단하고 선 공군비행장 이설책을 강구하면 해결된다.

소음피해보상법이 제정되지 않아 당사자 소송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국회는 소음피해보상법을 이번 회기 내에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전 광산구청장>

딴 세상에서 사는 그들

없을까? 그렇다면 차라리 길에서 지나가는 짚은이들 중 아무나 캐스팅해서 세운을 이들보다 못하지는 않을 거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해본다. 적어도 청년실업에도 보탬이 될 거고 권위나 가치 없이 참신한 정책을 행할 가능성도 있다. 자격이야 국회에서 정말 아무 관심 없이 여여 모두 충분히 검증할 테니 그것도 전혀 문제될 것이다.

아무튼 내 상상 속 이야기지만, 국회 청문회장에서 버젓이 입장전, 농지전용, 국적변경, 병역회피 심지어 금의 응둔까지 받았다면서, '그건 다 맞는데, 그래서 그게 뭐 어때가요?' 식으로 오히려 상식적으로 어이가 없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진다. 그런데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뭐 저 정도면 그리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니니 편한 트집 잡지 말고 대충 넘어가자.' 식이다. 이런 뭐 예명으로 국회가 아니라 조폭 사회에서나 있을법한 촌극이다.

이런 일들이 자꾸 펼쳐지면 용감한 이들이 행동으로 나설 수도 있지만 우리같이 새가슴 주부들은 그자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땐 차라리 해외로 나가서 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내

자는 도리가 나와 있다. 물론 현대의 공직자들에게 그처럼 행하라고 하긴 무리 줄 안다. 그래도 동서고금을 통틀어 공직자의 가치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즉 국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과 애국심이 있어야 하고, 더불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지도 당연히 해야 한다. 그래서 정의로운 영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진짜 모범이 돼야 할 분들의 모범답안이란 건 고작 부자가 어떻게 더 부자 되는 지에 대한 해답 하나는 똑 소리 난다.

요즘 한 달 치 세금연체고지서에 벌

벌 떨고, 소형 아파트 한 채 결혼 10년

만에 겨우 장만하고, 남편월급으로 근

근이 살아가는 내가 바로 애국자 된

듯한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나 주변에는

대부분 이런 소신민들이 모여 산다. 그

려나 낯선 그들은 여지껏 자기들만의

딴 세상에서 태어나 살다가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 과거는 접어두고 사이

좋게 지내보자 한다. 정말 그들에게나

나의 운명과 나의 운명마저 맡겨야 한

다는 게 불안하기만 한다. <주부>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한약재에도 '이력 신고제' 시행 했으면

수입농산물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유통 이력 신고제'는 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거래내역을 신고해 하고, 유통이력장부를 기록해서 1년간 보관하도록 하는데, 안타깝게 한약재가 포함돼 있지 않으나 제도를 바꿔서 한약재도 이력제를 하도록 해야겠다.

현대 식품으로 들어온 수입 한약재가 의약품으로 둔갑되는가 하면 수입 한약재가 바뀐다. ▲남민배·광주시 광산구 고룡동

두 번째는 그들이 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이다. 지금 밥을 짖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고급외제차 못 타고, 고급 아파트에 못 살고, 매니저 데리고 다닐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인가? 그러나 세상에서 연기자 말고도 자기가 쳐한 위치와 직업전선에서 그 일과 관련해 그런 안타까운 일, 극단적인 생각 한두 번씩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예인들이 토크쇼에 나와 너도나도 학창시절에 가출했다는 말을 자랑스레 늘어놓더니 이젠 그것도 모자라서 자살로 바꾼 건가? 제발 말조심을 했으면 한다. ▲강명순·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無等鼓

'텔로미어(telomere)'라는 개념이 있다. 영국 일간 간디언지가 세계 저명 과학자들과 함께 편은 '인류 종말 10대 위험' 가운데 하나다. 인류 유전자 양쪽에 붙어있는 텔로미어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퇴화를 기록함에 따라 인류의 수명이 줄어 멸망하게 된다는 가설이다. 인류가 향후 70년 이내에 부딪힐 수 있는 재앙 가운데 핵전쟁과 같은 수준의 피해를 줄 것으로 분류됐다.

왜 이런 경고가 나왔을까. 텔로미어는 특성 때문이다.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 과정에서 유전자 소실을 막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분열을 거듭할 수록 조금씩 짧아져 결국에는 세포가 죽는다. 그리고 영생의 비밀이 현세에서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과학자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당장은 짧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잘 먹고 꾸준히 운동하라는 권고가 더 많다. 균형잡힌 식단과 적당한 운동, 지속적인 명상으로 체내 텔로미어(telomerase)라는 효소가